



안상로 (사)한국토질및기초기술사회 회장

(사)토질및기초기술사회는 1981년 6월 8일 토질기초 분야 수가제정 및 품셈 보완 의뢰에 대한 회의로 모임이 시작되어 1983년 7월에 공식적인 조직을 갖추고 발족하게 되었다. 인가번호 제 289번의 법인설립인가증이 과 기부장관으로부터 발급되어 2004년 5월 6일에 사단법인으로 전환해 국가의 공적 법적 실체와 지위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토질및기초기술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신임회장으로 당선된 안상로 회장을 만나보았다.

일 시 : 2009년 2월 12일 11:00

장 소 : 한국시설안전공단 단장실

참석자 : 안상로 회장, 한국기술사회 손우화 홍보위원, 구수연 사원

■ 먼저 회장님의 이력과 토질및기초기술사들의 주된 업무에 대해 말씀해주시요.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재직하다가 1995년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설립되면서 공채 1기로 들어와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토목학회의 사회기반시설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한국지반공학회의 부회장 등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토질 및 기초기술사는 현재 950여명으로 건설 분야에서도 가장 근간이 되는 지반공학에 관한 기술자로서, 최고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건설안전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로는 지하철과 터널분야, 사면분야, 준설·매립과 항만분야, 흙댐과 하천·제방분야, 각종 구조물 기초분야를 들 수 있고, 이외에도 내진설계 분야, 지반환경 분야, 지열

에너지 분야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토질및기초기술사가 다루는 업무는 건설 분야에서 쓰이지 않는 데가 없을 만큼 약방의 감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토질및기초기술사는 지반공학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로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타 분야에 대한 전문도 동시에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사)토질및기초기술사회의 주요활동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요.

(사)토질및기초기술사회는 현재 자체 사무실과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로 및 기술고문단, 14개의 운영위원회, 7개의 전문기술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토질및기초기술사의 사명과 직무에 관하여 연구 검토하고 회원들의 품위유지, 기술 및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도모하여 국가 과학기술의 향상, 산업의 발달에 일조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궁극적 가치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토질및기초 분야의 기술 향상을 위한 기획, 조사, 연구, 정보의 수집 및 교류, 홈페이지 운영, 기술정보지 발행과 토질및기초기술사의 직무개발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법령 및 제도개선, 기술지도 및 신기술을 보급합니다. 또한, 토질및기초 분야의 기술적 분쟁에 대비한 기술위원회의 운영 및 기술 분쟁의 조정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지반조사 및 시험 해설집", "기초지반과 관련한 공법 소개집" 등을 발간하여 각종 공사에서 야기되는 혼돈의 방지와 다양한 시공법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발전하고자 합니다.

■ (사)토질및기초기술사회의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사)토질및기초기술사회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향상, 산업의 발달에 일조하는 비전을 가진 전문 기관입니다. 과거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가장 먼저 건설인들이 앞장서서 어려움을 타개해 왔듯이 국가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나라도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필두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다 많은 공공사업이 뒤를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사)토질및기초기술사회는 건설 산업의 근간이 되는 지반분야에 있어 일익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국가기간시설 SOC 및 민자사업 등 모든 건설 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영역을 확보하는 등 최고의 전문가 그룹을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토질및기초기술사회는 재난에 대한 공익차원의

봉사활동, 전문기술위원회를 활성화함과 더불어, 향후 국가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같은 전문분야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찾고, 회원간 정보교류와 이를 통한 새로운 업역확대, 토기회의 장래 비전을 마련코자 합니다.

■ (사)토질및기초기술사회를 이끌어오는데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사)토질및기초기술사회는 명확한 목표와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기술자와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호응하는 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신임 회장으로서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토질및기초기술사회에서는 국가 정책에 부응하는 대형 SOC 프로젝트와 국가 R&D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과 다양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국가 건설 분야의 기획 및 정책적인 분야에 조언을 하고, 입안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하는 데 또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 끝으로 (사)토질및기초기술사회 회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조언해주세요.

현재 (사)토질및기초기술사회는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보의 공유화를 통한 미래개척정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개인의 업무 수행 중에 닥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회원들 간의 논의를 통해서 해결코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또한 우리 기술사회와 회원의 발전을 함께 하기 위하여 참여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필요하며, 앞으로는 회원이 아니라도 평소에 관심있는 여러 전문가 분들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지금이 있기 까지 (사)토질및기초기술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선후배 그리고 동료 기술사님들께 14대 회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